

포스트소비에트 문화정체성과 새로운 모스크바 공간의 탄생*

이 지 연*

1. 이원적 문화 모델과 지속적 삶



2007년 12월 14일 모스크바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물인 크리스탈 아일랜드 건설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가 총 건설 지휘를 맡고 부동산 투자 및 경영 회사인 치기린스키 러시아랜드(Russian Land Ш. П. Чигиринского)社가 투자하여 모스크바에 세워지는 높이 450미터 면적 250만 평방미터의 거대한 건축물로 그 면적이 미국 펜타곤의 4배에 이르며 건축비만 해도 40억불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모스크바 당국은 러시아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알리는 이 건축물을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¹⁾ 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B00013).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1) 크리스탈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모스크바의 또 하나의 건대한 건축 프로젝트인 국제 상업 지구 '모스크바 시티'의 건설(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러시아 타워'를 비롯하여)은 러시아 금융 위기로 작년 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과거 소비에트 전당을 비롯한 많은 건축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국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징적 프로젝트에 불과한 지어지지 못한 계획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존재하지만 투자사에서는 경제 위기 회복과 함께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크리스탈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러시아판 위키피디아(<http://ru.wikipedia.org>)의 Хрустальный остров 항목 등 참조 모스크바 대형 건설 계획 중단에 관하여서는 "Кризисы старые и новые. Культурные итоги -2008," *Коммерсантъ Weekend*, 19 Дек, 2008

안에는 3만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900개의 아파트와 3000여 개의 호텔 객실)을 비롯하여 쇼핑몰과 대형 영화관, 국제 중고등학교 등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러시아 문화의 단면들을 대표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 몇 년 간 러시아가 유가 상승 등의 경제적 호재를 바탕으로 달성한 급격한 경제 성장과 국제 관계에서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상징이자 새로운 21세기 러시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모스크바 중심에 21세기의 수정궁이 건설되는 것이다.

모스크바 강변의 습지(Нагатинская пойма)에 세워질 예정인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적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지향을 구조화하는 이 거대한 수직적 기념비는 포트리 대제의 페테르부르크와, 지어질 수 없었던 스탈린의 소비에트 전당을 연상시킨다. 심지어 450미터의 높이는 과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게 지으려 했던 소비에트전당의 높이 420미터를 넘어선다. 21세기의 러시아 수정궁은 현재 러시아가 지향하는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유토피아의 기획과도 같았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거치며 진행된 해체와 파괴의 과정은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안정에 대한 열망에 자리를 내준다. 1991년 루반카(Пубянка) 광장의 중심으로부터 내려져 탈신화화와 탈이데올로기화의 과정을 거쳐 예술 공원으로 옮겨진 KGB의 전신인 체카(Чека)의 설립자 제르진스키(Держинский)의 동상을 되돌려 놓는 논의가 1997년 이미 등장했으며 1998년에는 급기야 두마에서 복귀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 된다.²⁾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는 거센 성상파괴의 움직임이 러시아 전역을 지배했다.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기념비들은 해체되거나 주변으로 옮겨졌으며 사회주의의 가치들은 탈신화화되었다. 스베틀라나 보임(Светлана Бойм)이 지적하고 있듯이 소비에트 기념비들의 평균 수명은 소비에트 남자 평균 수명보다 길지 못했다.³⁾ 부재를 존재로 치환하고 기억의 영원성을 지향하는 기념비가 50년 남짓에 불과한 소비에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

(<http://www.kommersant.ru/doc-y.aspxDocsID1092116>)

2) 제르진스키 동상을 둘러싼 논의들과 여론에 관하여서는 Benjamin Forest, Juliet Johnson(2002), 537을 보라.

3) Бойм(2002) "Стиль PR," *Неприкосновенный запас*, 6(26), Москва (<http://magazines.russ.ru/nz/2002/6/boim.html>)

이러니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과격한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탈이데올로기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이미 탈이데올로기화의 대상이 되었다. 러시아인들에게 80년대는 '기만적인 희망'의 시기로 평가되었다.⁴⁾ 수평적이고 다원적이며 파괴적이었던 레닌 시기의 문화가 스탈린 집권과 함께 수직적이고 단일한 기념비적인 스탈린 시기의 문화로 이행해 갔음을 보여주는 파페르니(Владимир Паперный)의 두 문화 이론은⁵⁾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과 브레즈네프의 '안정'에 대한 확고한 지향의 과정 속에서 뿐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그 이후의 푸틴의 새로운 러시아 정체성 형성의 과정 속에서 역시 반복되는 듯 보인다.

러시아 문화 패러다임이 보여주는 이러한 이항 구조에 대한 지적은 비단 파페르니만의 것은 아니다. 로트만은 러시아 문화가 연옥을 결여한 문화, 즉, 중립지대가 부재하는 극단적 이항의 문화임을 지적한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⁶⁾ 러시아 문화 속에는 가치적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러시아에서 대개의 문화변동은 선행 단계로부터의 과격한 분리나 반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즉, 체제 변환에 따라 이전의 '反문화'가 규범적 문화가 되며, 새로운 문화는 '反문화'의 속성들과 결합한다. 가령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이것을 신성한 러시아의 종교로 확립시키기 위해 기존의 러시아 전통 토착 신앙을 이교적인 것, 불성한 것, 타파해야 할 것으로 각인시키는 블라디미르 대공의 종교 수용의 과정이 그러했다. 블라지미르 대공은 키예프언덕에 세워져 있던 토착신인 페룬 입장을 파괴하고 그것을 낮은 지역으로 옮겼으며, 페룬 입상이서 있던 높은 언덕 위에는 성 일리야의 기독교 교회를 세웠다. 또한, 러시아 정교가 가톨릭보다 우월함을 역설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러시아 토속신앙과 함께 '옛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것과 옛것의 대립이라는 당시의 문화적 이원론 속으로 편입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이항적 구조를 따르는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소비에트 정권의 성립과 붕괴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차르 정권에 대한 강한 상상파괴적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 러시아 혁명은 레닌과 스탈린을 차르의 파괴된 기념비 위에 세워지도록 했다. 이는 소연방이 붕괴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과 레닌의 기념비를 비롯한 소

4) 위의 글.

5) Паперный (2006); 이지연 (2008), 346-387 참조.

6) 이에 관하여서는 Лотман (2002), 88-116을 보라.

비에트 정권에 바쳐진 모든 기념비들은 파괴되었으며, 대신 억압되었던 차르와 러시아 정교에 바쳐진 기념비들은 복권되었다.

이처럼 로트만의 이원적 문화모델은 러시아문화 패러다임 변화 전반에 대한 매우 정확한 설명이 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설명은 동시에 역설적으로 기존의 지배적 문화에 대한 강제적 부정의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과거 문화의 지속과 공존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⁷⁾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낮은’ 곳으로 보내지고 부정되었던 이교는 여전히 민중의 삶 속에서는 지속되었으며 그러했기에 이후 가톨릭을 이교와 동일시함으로써 배척하는 것이 가능했다. 러시아 문화의 변동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보다는 정치 엘리트들의 기획과 수용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 역시 강제적 문화 패러다임의 교체 속에서 여전히 지속된 다른 문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대한 급격한 거부와 단절 속에서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과 반소비에트적인 가치들이 새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이 되었다. 강요된 새로운 가치적 질서를 통해 대중을 이끌려는 정치 엘리트들의 노력은 문화의 다양한 지점에서 나타났다.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기념비를 부수는 행위 역시 과거 문화와의 강제적 단절을 위한 프로파간다와 다르지 않았다. 이는 분명 대중들의 의식 속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 직후 스탈린의 테러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논의가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사실이나 반스탈린 담론이 가장 거세었던 1988년 당시에조차 스탈린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12%에 이르렀고 심지어 1998년에는 34%에 달했으며,⁸⁾ 최근 16-29세의 러시아 청년 가운데에서는 무려 56%가 스탈린이 악행이라기보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답한 것,⁹⁾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반성이 완성될 겨를도 없이 1990년대 들어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한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강한 향수와 같은 현상들은¹⁰⁾ 급격한 부정과 해체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실제 러시아인들

7) 이러한 로트만의 이항적 구조 속에서의 강제적인 문화적인 단절과 강요된 새로운 문화, 기존의 문화의 기능을 새로운 문화가 대체하는 과정, 기존의 문화의 잠재적인 지속의 역설적 상황에 대해서는 18세기 러시아 문화 패러다임에 대한 다음의 논의를 참조하라. 김수환(2005), 37-38.

8) 김남섭(2004), 309.

9) Chauvier(2004); Gerber(2005), 83-96. 라승도(2008), 210에서 재인용.

10) 현재 러시아 문화의 노스텔지어 현상에 대해서는 이문영(2009), 44-60;

에게 잠재된 지난 시대의 문화적 흔적들을 주목하게 한다.

필자는 70-80년대 소비에트의 비순응적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미술 운동인 소츠아트(соц-арт)와 모스크바 개념주의(Московский концептуализ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스탈린주의 및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체계에 대한 급진적인 파괴와 해체, 탈신화화의 전략을 고찰하였다.¹¹⁾ 그러나 해체와 탈신화화라는 미학적 전략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망명 이후의 작품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원인 불명의 노스탤지어 현상이었다. 체제에 대한 비순응과 예술의 자유를 추구했으며 그러한 소비에트의 정치권력을 피해 해외로 망명한 이들에게서 어느 순간 나타나기 시작한 목가적인 크레믈린의 풍경이나 폐허가 된 제국의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기호들을 해체하면서 동시에 아련한 유년의 기억을 병치시키는 일련의 작품들에 대해 코마르(Комар)와 멜라미드(Меламид) 같은 작가들은 심지어 「노스탤지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연작(Nostalgic Socialist Realism Series)」(1982-83)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게다가 그것은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기도 한참 이전이었다. 이 연작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소비에트 연방을 떠났다는 것, 즉 그들에게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모든 소비에트적인 것은 이미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외부에 타자화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푸쉬킨이나 차이코프스키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롯한 소비에트의 문화와 삶은 이들에게 사라져 버린 어떤 것인 동시에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일부였다. 이러한 정체성의 두 층위, 달리 말하면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삶과 문화적 습성으로서의 아비투스(habitus)' 깊이에 내재하는 소비에트적 삶의 타성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의 완전한 공간적 분리의 과정을 겪은 망명자이자 유테인이라는 정치적, 민족적 정체성 사이에서의 괴리야말로 이들이 비판적 시선의 대상이었던 소비에트 이념의 기호들에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순진무구한 유년의 기억을 덧씌우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는 현대 러시아 사회 속의 소비에트적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의 러시아적 정체성이 이미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의 러시아 정체성 형성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하게

Adler(2005), 1093-1119 등을 참조하라.

11) 이지연(2006), 97-125.

하였다. 망명 예술가들이 그러했듯 소비에트 붕괴 이후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요구된 정체성, 어쩌면 정치 엘리트들의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에 대한 투쟁이나 그것의 제도화 혹은 대중과의 상징적' 소통의 과정에서 형성된 복잡하고 혼란한 포스트소비에트적 정체성은 소비에트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획득되고 상속된 아비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소비에트적인 것이 중요한 상징자본으로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나 상업적 광고와 자주 결합되는 등의 현상은 1990년대 초 새로운 러시아적 정체성 형성의 과정 속에서 배척된 소비에트적 정체성'이 이미 외재적인 기호체계를 형성했으며 또한 대중은 그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상실의 과정을 경험하였기에 가능했다. 즉, 소비에트적인 것은 포스트소비에트 대중에게 여전히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급격한 타자화의 과정을 거친 어떤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소비에트적 정체성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적 정체성과의 관계 속에서 흡수, 변형 및 배척되고 새로운 러시아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스크바 소비에트 기념비들의 재의미화 과정과 새로운 기념비적 건축물의 등장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기념비를 둘러싼 정치 엘리트들의 투쟁의 과정은 곧 러시아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 형성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의 가치론적 질서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글에서는 모스크바 시장 루쉬코프(Юрий Лужков)와 1990년대 모스크바의 기념비적 건축물 대부분을 건설한 체레텔리(Зураб Церетели)의 프로젝트 속에 반영된 현대 러시아 문화 정체성의 혼돈과 문화적 혼종 현상을 분석하고 소비에트적인 것의 폐기와 자유주의적이고 서구적인 문화에 대한 지향이라는 급격한 변화로부터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문화적 이원 구조가 이후 푸틴 집권 시기에 이르러 소비에트적인 것을 흡수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을 고찰하려 한다.

로트만이 지적한 러시아 문화의 고질적인 이원론은 현재 러시아의 문화적 다원성 속에서도 여전히 폐기되지 않는 듯 보인다. 문화적 선과 악의 틀 속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문화 정체성의 요소들은 선과 악의 양 축을 오가며 전도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는다. 이는 때로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다. 1999년 자유주의적인 언론 НТВ에 대한 탄압은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와 분리될 수 없는 시장 경제 원칙이 오히려 민주주

의를 억압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된 것이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러시아적 좌파 이데올로기가 결국 러시아적 극우로서의 파시즘의 형태를 띠게 되는 최근의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¹²⁾ 반면 소비에트적인 것은 문화적 선의 위치로 복원된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선악 구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역설 속에서 소비에트적인 것에 부여된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재 러시아 문화 정체성의 참모습을 밝히는 것 또한 이 글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2. 포스트소비에트 모스크바와 소비에트 기념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소비에트적 정체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체성 수립의 과제에 직면하였다. 사실상 소비에트 연방은 하나의 국가이기에 앞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거대 제국이었으며, 러시아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영도화된 제국의 구심점이었다.¹³⁾ 엄밀한 의미에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근대적 의미에서의 국민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 국민국가 건설의 시점에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졌지만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지정학적 연합에 가까웠으며 근대적인 민족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즉,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비에트적 정체성과 교착되었으며, 따라서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정체성 수립의 과정은 러시아라는 새로운 국가의 정통성을 창조해 내는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

소비에트의 정치 지도자들은 새로운 이념의 제국의 형성 과정에서 과거 러시아 제국의 이념을 차용하였고 필요에 의해 변형하였던 바, 이미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러시아적인 것과 소비에트적인 것은 복잡한 혼종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소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 역시 다른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적인 것을 부정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과거의 소비에트적 기억에 대한 배척과 재의미화라는 일종의 기억의 정치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부정은 때로 러시아적 정체성 자체

12) Бойм(2002) 참조.

13) Forest, Johnson(2002), 525를 보라. 아울러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소비에트 기념비가 해체되고 재건되는 과정에 대한 본 논문의 논의들은 많은 부분 위의 논문으로부터 인용되었다.

에 대한 부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는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에서 이후 펼쳐지게 되는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야기하게 된다. 소비에트적인 모든 기념비들이 파괴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물론 일부 기념비들은 파괴되었고 다른 것들은 중심으로부터 밀려나 옮겨졌다. 그러나 해체되지 않은 소비에트의 기념비들은 소비에트적인 것과 구별되는 러시아적 정체성의 수립을 위해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대표하는 기념비들과 결합되고 병치되었다. 정치 엘리트들의 상징자본'에 대한 투쟁은 이러한 과거 기억의 장소들을 재의미화하는 과정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교착의 현상은 1990년대 러시아 정치 엘리트들의 각기 다른 입장들 속에서도 나타났다.

엘친은 스스로를 서구적인 지향을 지닌 민주주의자이자 러시아 민족주의자라고 규정하였다. 이 때 그의 민족주의는 러시아 민족(русский)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주의라기보다는 러시아라는 국가에 속한 모든 민족들을 아우르는(российский) 국가주의에 유사한 것이었다.¹⁴⁾ 그에게 있어서 이 두 개념은 대립된 것이 아니었다. 대신 이에 반하는 것은 '소비에트적인 것'이었다. 그는 러시아의 소비에트적 과거와 기억을 폄하하거나 재의미화했으며 자신이 러시아를 소비에트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평가되기를 원했다. 즉, 그에게서는 러시아적인 것과 소비에트적인 것이 대립을 이루었으며 이 때 전자에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공산주의자들은 '소비에트적인 것'이야말로 러시아 제국을 후진성으로부터 구해낸 것이라 주장하면서 소비에트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을 문화적 선의 위치로 놓았으며 그 반대급부에 민주주의를 위치시켰다. 이처럼 엘친과 공산주의자들의 입장 차이는 러시아 혁명의 기념비들에 대해 논쟁적인 시각을 가져온 이유가 되었다. 엘친의 경우 혁명의 기념비들은 파괴되어야 하는 것인 반면 공산주의자들에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러시아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의 상징자본에 대한 투쟁은 과거의 기념비들을 지켜내는 것에 집중되었다.

모스크바 시장 루쉬코프의 경우 엘친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민주주의자이자 反소비에트적 정치지도자의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했다. 러시아 정교적인 것

14) 엘친과 공산주의자들, 루쉬코프의 정치적 노선과 그것에 반영된 소비에트적인 것과 러시아적인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글 Forest, Johnson (2002), 528-530.

역시 反소비에트적인 것으로서 복권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분히 러시아 민족 중심적인(русский) 민족주의 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 국경 너머에 사는 러시아 민족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했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에트적인 것을 비난했고 소비에트적인 잔재를 모스크바 공간에서 지워버리고자 했지만 정작 그가 건설한 모스크바의 모습은 많은 부분에서 과거 소비에트 건축의 부활과 같이 보였다. 즉, 그에게 있어 긍정적인 것을 이루었던 민주주의적이고 反소비에트적인 것에는 러시아 민족주의라는 다분히 反민주주의적인 가치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과거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선별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정치엘리트들의 작업 역시 정치적 선과 악이라는 두 축에 과거의 정체성들을 분류하여 배치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 모스크바의 옛 기념비들은 이러한 두 축을 따라 보존되거나 폐기되었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일반적으로 그 이전의 러시아적인 것들이 찬양되었고 소비에트적인 것은 폄하되었다. 모스크바의 기념비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특히 소비에트 붕괴 직후 소비에트 체제 자체에 대한 해체의 흐름이 거세었고 따라서 제르진스키 동상을 비롯한 소비에트 지도자들의 기념비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공산당과 관련된 대표적인 상징적 장소들까지도 파괴와 재의미화를 겪는다.

예를 들어 옐친은 1993년 레닌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으며 소련 공산당의 정책이 결정되고 그 프로파간다만 들어졌던 장소인 레닌박물관을 폐지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지만 러시아 공산당마저도 이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확대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소비에트 경제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공장소였던 베데엔하(ВДНХ: Выставка Достижений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ССР) 역시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초반 베데엔하는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으며 1992년 옐친은 베데엔하라는 명칭을 보다 일반적인 베베체(ВВЦ: Всероссийский выставочный центр)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은 한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방치되었다. 그 안에 세워진 기념비들은 옮겨지거나 해체되지 않았지만 버려진 것과 다를 없었다. 그러나 이곳은 러시아에 자본주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새롭게 탄생된다. 각각의 상인들이 장소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동차에서부터 컴퓨터, 생활용품에 이르는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업공간으로 변화해

갔다. 마침내 1999년에는 베베체의 영토 위에 본격적인 대규모 쇼핑센터를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소비에트 시기 생산자로서의 소비에트 민중을 대표하던 공간은 소비에트 경제 이데올로기가 부정됨에 따라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본격적인 상업공간이 되었다. 그 곳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러시아의 시민들은 더 이상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¹⁵⁾ 늘 생산과 노동의 주체였던 소비에트인들은 소비의 주체로서의 포스트소비에트적 인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베데엔하가 베베체로 변화되고 이후 자본주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소비에트적인 이데올로기가 비워져 버려진 공간을 자본주의적인 것이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소비에트를 대표하는 공공장소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포스트 소비에트의 모스크바 거리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에트 시기 거리는 정치적인 의미의 영토(territory)'였다.¹⁶⁾ 그곳에는 통제와 규율이 존재했다. 즉, 국가는 거리 곳곳에 내재했다. 따라서 소비에트 시기 거리에서 요즘처럼 술을 마시며 떠들어대는 젊은이들의 그룹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붕괴와 함께 거리는 탈영토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 때 통제와 규율이 사라지고 버려진 공간은 곧 키오스크와 맥도날드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상업공간으로 메워졌다.

맥도날드는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신기한 현상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은 소비에트 시기의 대표적인 사적공간으로서의 개인적 소통의 장이었던 부엌'이 과거 영토화된 공간이었던 거리 위에 개방되는 일종의 사건이었다. 특히 유리로 된 창을 통해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맥도날드의 인테리어는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맥도날드의 인테리어를 모방하였으며, 자주 카페 밖이나 테라스 같은 거리와 만나는 지점으로 사적인 공간은 확장되었다. 모스크바 거리에는 유난히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생겨났다. 이러한 과정의 심층에는 부정된 사회주의적 공간으로서의 영토'가 자본주의 러시아의 형상으로 변화해 가는 메커니즘이 반영되어 있다. 모스크바 거리 위의 카페와 상점들은 '영토화된'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일한 전체로서의 소비에트의 삶이 탈영토화된 공간 위를 부유하는 섬과 같은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의 징후이다. 이는 버려진 소비에

15) Forest, Johnson(2002), 535.

16) 모스크바 거리의 탈영토화에 대한 논의는 Argenbright(1999), 1-15를 참조하라.

트적 기념비가 새로운 정체성의 상징으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은 정교적인 것이었다. 러시아 정교와 1917년 이전의 러시아 역사와 관련된 기념비들에는 새로운 의미와 후광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지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적 정신과 문화적 유산이 강조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트레차콥스키 미술관을 재건했고 그 안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대표작들과 성화를 전시했다. 푸쉬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1999년의 행사에는 루쉬코프가 이끌던 조국(Отечество)당을 비롯하여 공산당과



심지어는 극우주의자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 등 모든 정치가들이 한 목소리로 적극 참여하였다.

모스크바 강변에 구세주 성당을 건설하는 것 역시 소비에트적인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러시아적 정체성의 존재를 알리는 분명히 정치적인 행위였다. 반소비에트적이며 러시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루쉬코프가 구세주 성당의 건설을 지휘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이미 1993년 붉은 광장의 카잔 성당을 재건하였으며, 마침내 1997년 9월 모스크바 850주년 기념행사 기

간 동안 소비에트 전당 건설을 위해 스탈린이 파괴했던 구세주 성당 재건을 완료하고 대중에 공개하였다.¹⁷⁾

소비에트적인 것이 러시아적인 것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승리공원(парк победы)이다. 정교적인 것과 함께 소비에트의 역사적 사건인 2차 대전 역시 기념되고 찬양되었다. 러시아인들에게 2차 대전의 승리는 신화적인, 심지어 종교적인 사건이었다.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이었던 소비에트 정권의 승전을 기념하는 승리공원(парк победы)에 가장 정교적인 상징인 게오르기 상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58년부터 기획되었으나 결국 건설될 수 없었던 승전기념비는 1993년 루쉬코프의 주도하에 다시 건설되기 시작한다. 이 때 흥미로운 것은 승리공원을 통해 기념한 전쟁의 승리가 소비에트인

17) 구세주 성당 건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idorov (2000), 548-572을 참조하라.

들의 승리가 아닌 러시아인들의 승리로 기념되었다는 점이다. 고르바초프 시기 자본의 부족으로 건설이 중단되기 전까지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많은 소비에트적인 상징들은 제거되었다. 심지어 승리공원의 공식 안내책자에 소비에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앞서 지적한 게오르기상과 천사상을 비롯한 정교적인 상징물들이 더해졌고 마침내 1994년에는 성 게오르기 교회가 건설되었다.¹⁸⁾

이처럼 승리공원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정체성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물이었다. 그것은 소비에트의 역사를 포스트소비에트적으로 재의미화하였으며 차르 시대 이전 러시아의 문화적 가치들과 종교적 정체성을 더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 민족주의를 고취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이슬람사원과 유대교 시나고그가 그곳에 더해졌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여전히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민족주의적인 지향이 다민족 국가로서의 전러시아적 국가민족주의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엘친은 1996년 러시아 역사에는 늘 어떠한 이념이든 존재해 왔으나 현재 러시아는 그 어떤 이념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면서 1년 동안에 걸쳐 상금 천만 루블을 걸고 새로운 러시아의 국가 이념을 공모하였다.¹⁹⁾ 루쉬코프의 모스크바 건설과정은 엘친이 제기한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자 또한 이유가 된다. 그가 기획한 많은 건축물들은 그가 지향하는 새로운 러시아 정체성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그것이 그 어떤 실체도 지니지 못한 혼종적인 것에 불과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루쉬코프는 모스크바를 늘 건설중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건설중인 모스크바'는 곧 건설중인 러시아 정체성'과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건설 프로젝트에 의해 모스크바에는 다양한 서로 다른 스타일의 건축물들과 기념비들이 세워진다. 특히 그 중심에는 루쉬코프의 친구이자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인 주랍 체레텔리(Зураб Церетели)가 존재한다. 승리 광장과 구세주 성당을 비롯하여 대개의 루쉬코프의 건축 프로젝트에 그가 참여했다. 많은 이들은 루쉬코프와 체레텔리의 건설프로젝트를 비난했다. 심지어 솔체니친은 그가 모스크바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개탄했다.²⁰⁾

18) 성 게오르기는 모스크바의 상징이기도 하다.

19) Forest, Johnson(2002), 530.



옆의 사진은 체레텔리에 의해 모스크바 강에 세워진 높이 98m의 피터 대제 동상(1997)이다. 러시아의 비평가들은 포트르 동상이 마치 공포영화 속의 강에서 튀어나온 괴물을 닮았다고 비난했다. 그의 건축물의 미학적인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 이 거대한 기념비를 비롯하여 체레텔리의 건설에 소요되는 거대한 자본에 대해서 역시 비난이 쏟아졌다. 러시아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루쉬코프는 체레텔리의 건축물에 엄청난 액수의 모스크바 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었으며 체레텔리는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의 부패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포트르 동상의 맞은 편에는 거의 동시에 구세주 성당이 지어졌다. 구세주 성당(1997)은 루쉬코프의 반소비에트적이며 정교적인 프로젝트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체레텔리는 구세주 성당의 건설에도 참여하였으며 구세주 성당의 벽을 조야한 국적 불명의 금속들로 장식했다. 이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체레텔리가 건축을 위해 공급된 금속을 개인적으로 거래한다는 의심과 함께 그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²⁰⁾

러시아 대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세주 성당의 건설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였다. 당연히 그들은 시민들의 모금과 종교단체 및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 성당이 건설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 구세주 성당은 모스크바의 은행들과 기업 및 자본가들의 스폰서로 건축되었다. 비록 모스크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모스크바의 자본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결국 구세주 성당은 반소비에트적이며 정교적이고 러시아적인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자본의 힘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탄생하게 되었다.

루쉬코프의 건설 사업의 많은 부분이 쇼핑몰과 해외명품매장 같은 상업공간이었다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2000년 중반을 거치면서 모스크바의 상업 공간 면적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서구적 자본주의의 이상을 상징하는 수정공 형태의

20) 주립 체레텔리의 새로운 건축물과 그 특징들에 대한 논의들은 Grant (2001), 332-362와 Beumer (2005), 112-125, Бойм (2002), Sidorov (2000) 등을 참조하였다.

21) Grant (2001), 345.

삼각형 구조물이 토고 은행 건물 위에 얹어졌고 모스크바 중심부의 아호트니랴드(Охотный ряд) 지하를 관통하는 거대한 상업 공간이 건설되었다.²²⁾ 이는 수직적인 거대한 스탈린 양식 건축물들이나 지하세계에 대한 계몽과 새로운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극치로서의 지하철을 건설하는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루쉬코프-체레텔리 버전과도 같았다.

시민들과 비평가들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루쉬코프가 체레텔리를 통해 추진한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는 모스크바 건설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던 스탈린 시기의 건축 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는 또한 앞서 열친이 지적한 러시아의 정체성 부재라는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그의 비난받아 마땅한 건축 프로젝트들은 反소비에트적인 새로운 러시아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기능과 형식에 있어서는 소비에트의 기념비들과 다르지 않았다. 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포트르 동상을 비난했지만 실제로 모스크바 강을 따라가며 보게 되는 그의 작품은 조야함보다는 크기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이는 스탈린 시기의 건축이 당시 서구의 대부분의 건축가들로부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웅장함으로 인해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포트르 조각상을 비롯한 체레텔리의 기념비적 건축물들 역시 도시의 풍경의 일부로 동화될 것이다.

그의 기념비들은 거대함으로 인해 현실성을 초월한다. 포트르 대제가 페테르부르크를 창조해 내었듯이 루쉬코프와 체레텔리의 기념비들 역시 새로운 러시아의 탄생을 알린다. 서구주의와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상징하며 모스크바 강가에 세워진 포트르 동상과 소비에트 전당의 자리에 세워진 웅장한 구세주 성당은 서구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정교와 문화적 전통, 민족주의를 하나로 결합한 러시아의 국가 이념을 세우는 행위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대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 공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본주의와 상업공간의 성격까지 더해졌다. 즉, 루쉬코프의 건축물들은 러시아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포스트소비에트에 바쳐진 기념비였다.

그러나 그들의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모스크바 동물원의 조각상(위의 그림)과 크레믈린의 알렉산드르 정원 곳곳에 설치된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동물들로 장식된 건축물들이었다. 모스크바 동물원의 개축 과

22) Beumer (2005), 112-125.



정에서 체레첼리는 입구의 문을 온갖 새와 동물들의 부조로 장식된 만화적인 건축물로 만들었다. 또한 동물원 내부에 역시 동화나 만화 속에 존재할 법한 동물들로 이루어진 조각상을 세웠다. 그랜트(B. Grant)는 이와 같은 체레텔리의 건축물들에 대해 순수성의 국가(state of innocence)'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한다.²³⁾ 그가 만들어낸 포트리 대제 역시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장식하는 깃발들과 디테일들은 포트리 대제를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크레믈린의 이름 없는 병사들에 바쳐진 비석의 근처에 세워진 곰과 사자 같은 동물들의 조각상은 소비에트적인 기억을 동화적 판타지의 세계로 덮어버린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체레텔리의 '순수한' 조각상으로 장식된 마네쥬 광장(Манежная площадь)의 분수를 산책한다. 건축가의 조야한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라 단순히 말하기에는 그의 유아적인 건축물들은 현실을 아름답고 목가적인 이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소비에트 시기의 프로파간다와 지나치게 닮아 있다.

이처럼 정체성의 과도기에 루쉬코프와 체레텔리에 의해 건설된 모스크바의 형상은 현대 러시아 정체성의 단면들을 표상하는 기호들이 공존하며 자주 그러한 기호들의 의미가 비워지고 그 기호의 관습화된 표면들 위로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는 문화적 잡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反소비에트적 이념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스탈린 양식을 모방하였고 소비에트의 낙관주의와 어린아이다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도시 공간을 창조하였다. 러

23) Grant (2001)을 보라.

시아 정교를 통한 러시아 정체성의 복원을 상징하는 구세주 성당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의 힘이였으며 또한 대 러시아 제국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드러내며 그가 창조한 새로운 모스크바는 도시의 가장 중심부의 지하(Okhotnyi riad; Охотный ряд)로부터 모스크바 외곽에 이르는, 자본의 논리를 반영하는 250만 평방미터의 쇼핑몰 공간과²⁴⁾ 해외자본들을 대표하는 대형 슈퍼마켓들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 루쉬코프에 의해 건설된 모스크바의 형상은 러시아의 새로운 정체성이 소비에트적인 것에 반하는 反소비에트적인 것'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포함된 모든 이질적인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으로 이행하면서 러시아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양상은 다소 변화를 겪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反소비에트적인 가치로서 급격히 유입된 자본주의에 대해 생겨난 반감이었다. 소비에트적인 것과 反소비에트적인 것으로 구분된 이항적 구도 속에서 反소비에트적인 것으로서의 자본주의와 기타 가치들 간의 대립이 생겨나게 된다. 이와 함께 소비에트적인 것은 기존의 反소비에트적 가치들로 분류되었던 모든 것들, 즉, 정교적인 것, 민족주의적인 것, 러시아의 문화 전통과 함께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게 된다. 반면 이제 정교적인 것과 소비에트적인 것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 항은 하나로 결합될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더욱 심화된 자본주의적인 것에 대한 반감은 과거의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더 강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수환이 2004년도 영화 「나이트 워치」를 분석하며 제시하는 변화된 사회적 의식'과 은밀한 치환의 징후'²⁵⁾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 反소비에트적 정체성으로 강요되어 왔지만 러시아인들의 삶 속에서 결코 선택한 것이 될 수 없었던 악한 자본주의의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인들은 소비에트적인 것과 결합된 강한 국가의 형상을 택한다. 바로 이 시기에 과거 루반카 광장으로부터 옮겨진 제르진스키의 동상의 복원이 결의되고, 특히 이 때 제르진스키의 형상에 정의의 수호자', 부패 및 범죄와 투쟁하는 전사'의 이미지가

24) Beumer (2005), 120.

25) 김수환(2008), 213-236. 필자는 여기서 김수환이 루키아넨코의 소설과 베르삼베토프의 영화를 비교하면서 지적한 치환의 양상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해지는 1990년대 후반, 소비에트적인 것과 자본주의적인 것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치환의 양상에 주목한다.

부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²⁶⁾

3. 내밀한 이산적(diasporic) 기억과 소비에트적인 것'

앞서 2장을 통해 살펴본 소비에트 기념비의 파괴와 재의미화, 새로운 기념비적 건축물들의 탄생 과정은, 그것이 결국 대중의 삶 속으로 침투하게 되고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작위적이며,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적 이상의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즉, 정체성이란 대중적인 차원의 정체성과 정치 엘리트들이 강요하는 두 차원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정치 엘리트들의 급진적인 시도들은 대중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강요하며, 또한 대중의 삶은 정치 엘리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강요된 반소비에트적 가치들은 대중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삶 속의 가장 큰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그것을 먼저 체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상실의 과정이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타자화를 촉발하였다.

이 과정은 망명자들이 떠나 온 고향에 대해서 느끼는 상실의 감정과 다르지 않다. 망명자들이 고향을 떠났듯이, 이 경우에는 고향이 그들을 떠난 것이 된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낯선 정체성의 사회 속에 놓이게 된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인들은 그러한 정체성에 동화되어 가면서 동시에 사라진 소비에트적인 것에 대한 기억을 지니게 된다.

스베틀라나 보임은 망명자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²⁷⁾ 러시아에 살 때라면 전혀 실내 장식에 사용하지 않았을 법한 조야한 소비에트 시대의 키치에 가까운 기념품들이 하나 같이 그들의 집 선반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방문한 또 다른 망명자는 그러한 사물들 가운데서 안락함과 친밀함을 느낀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고국을 상기시켜 주는 모든 물건들을 수집한다. 이들의 수집 행위는 결국 소비에트의 쓰레기들로 전시장의 공간을 채우는 일리아 카바코프(Илья Кабаков)의 설치미술과 다르지 않았다. 상실한 고향의 기억을 담고 있는 기념품들은 조국으로

26) Бойм(2002)을 보라.

27) Воум(2001), 331-335.

부터 옮겨와 각각의 집에, 혹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된다. 스베틀라나 보임은 이들이 그러한 사물들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이산적 친밀감’이라 정의하였다.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소비에트적인 것 역시, 망명자들의 기억 속의 친밀한 사물들이 그러했듯이 새로운 러시아 국가 정체성 수립의 과업을 위한 정치 엘리트들의 기획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향유되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스크바의 예술공원(Парк искусства)이다. 원래 서 있던 자리로부터 내려진 소비에트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념비들이 옮겨진 곳이 바로 여기다. 제르진스키를 비롯한 소비에트의 정치 지도자들의 기념비들은 그것의 과거의 이념적인 후광을 잃고 정치적 탈맥락화를 거쳐 이 공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소비에트 지도자들의 기념비가 공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곧 과거 그것이 서 있던 공공장소가 만들어내는 콘텍스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이 탈신화화의 과정을 거쳤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0년대 소츠-아트와 모스크바 개념주의자들의 탈신화화 전략은 포스트 소비에트 정치 엘리트들이 과거 이데올로기의 기호들을 정치적으로 탈맥락화함으로써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획득하는 과정을 선취한다.

공원으로 옮겨진 동상들에는 그들의 과거의 경력을 짧막하게 설명해 주는 현판이 걸리게 되었고 1996년에는 이러한 기념비들의 폐허에 본격적으로 예술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²⁸⁾ 쓰레기가 된 기념비들이 이제 소비에트의 전제주의 예술을 대표하며 박물관에 전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공원과 나란히 위치한 또 다른 박물관에는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예술 공원은 소비에트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박물관과 다르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인들에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를 이루는 다른 공원들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익숙한 곳인 동시에 과거의 소비에트 시기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의 기념비들은 소비에트인들에게 정치적인 것이 아닌 미적인 것으로 체험되기 시작한다. 로마슈코(С. Ромашко)가 기념비에 내재한 시간의 문제를 성찰하면서 지적하고 있듯이²⁹⁾ 기념비는 그것이 원래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이동하는 순간 기념비가 아닌 일종의 기념품이 된다. 이는 기념비가 그것을 중심으로 흐르던 시간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제

28) Forest, Johnson(2002), 536-537.

29) Ромашко(2002).

기념비는 도상적인 기호가 아닌 재현적인 기호가 된다. 망명자들의 선반을 장식하는 기념품들처럼 다른 장소로 옮겨진 기념비는 고유의 역사와 스토리를 지닌 기억의 사물로 변화하게 한다.

최근 소비에트적인 기호들이 러시아인들의 일상의 삶 속으로 다시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삶 속에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그들에게 의미를 지닌다. 문화적 타자화의 과정 속에서 자유롭게 기호화가 가능한 사물로 재의미화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정치 엘리트들의 정책과 대중의 일상의 차원은 작중의 흔적을 보인다. 대중들에게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친근한 기억으로 남겨진 소비에트적인 기호들은 다시금 정치 엘리트들의 PR의 수단이 된다. 반면 정치 엘리트들의 프로파간다는 대중들의 집단적인 의식 속에서 소비에트적인 것을 재의미화하고 재신화하는 과정을 촉발한다. 최근 러시아의 강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소비에트적인 것의 부흥은 단순히 강한 러시아와 과거 소비에트의 부활이라는 이념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인들의 삶과 사회 속에서 지속되어 온 정체성 탐구의 궤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남섭(2004) 「우리안의 스탈린」: 스탈린 테러와 러시아인들의 기억, 『러시아 연구』, 제14권 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307-336.
- 김수환(2005) 「책에 따라 살기」: 러시아적 문화 유형의 매혹과 위험, 『러시아 연구』, 제15권 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35-59.
- _____ (2008) 「티무르 베크맘베토프의 「나이트 워치」: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 혹은 징후로서의 영화」, 『러시아 연구』 제18권 제1호, 213-236.
- 라승도(2008) 「노스텔지어의 미래: 현대 러시아 문화에 나타난 소비에트 과거의 재해석」, 『푸틴 시대의 러시아 문화: 과거, 현재, 미래 - 2008년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공동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209-221.
- 이문영(2009)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노스텔지어: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과거의 활용」, 『제 8차 러시아학 콜로키움 - 러시아 언어, 문화 그리고 사회(프로시딩)』, 충북대학교 러시아, 알타이 지역연구소, 44-60.
- 이지연(2006) 「해체와 노스텔지어: 소츠-아트와 소비에트 문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1집, 한국러시아어문학회, 97-125.
- _____ (2008) 「기념비와 스탈린 신화: 권력의 재현적 공간으로서의 소비에트 예술과 삶」,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9집, 한국러시아어문학회, 346-387.
- Бойм, С.(2002) "Стиль PR," *Неприкосновенный запас*, 6(26), Москва (<http://magazines.russ.ru/nz/2002/6/boim.html>).
- "Кризисы старые и новые. Культурные итоги-2008" *Коммерсантъ Weekend*, 19 Дек, 2008(<http://www.kommersant.ru/doc-y.aspx?DocsID=1092116>).
- Лотман, Ю. М.(2002) "Роль дуальных моделей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до конца XVIII века)," *История типолог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б., сс. 88-116
- Паперный, В.(2006) *Культура Два*, Москва.
- Ромашко, С. "Монумент - сувенир - улика: временная ось мегаполиса," *Логос* 2002 No. 3-4.
- Adler, N.(2005) "The future of Soviet past remains unpredictable: The resurrection of Stalinist symbols amidst the exhumation of mass graves," *Europe-Asia Studies*, Vol. 57, No. 8, pp. 1093-1119.
- Argenbright, R.(1999) "Remaking Moscow: new places, new selves," *The*

- Geographical Review* 89(1), 1-22.
- Beumer, B.(2005) *Pop culture Russia!. Media, Arts, and Lifestyle*, Santa Barbara: ABC-CLIO.
- Boym S.(1999) "From the Toilet to the Museum: Memory and Metamorphosis of Soviet Trash," *Consuming Russia*. Duke Univ. Press, 383-396.
- _____ (2001) *The Future of Nostalgia*, New-York.
- Forest, B., Johnson, J.(2002) "Unraveling the threads of history: Soviet-era monuments and post-soviet national Identity in Moscow",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2(3), 524-547.
- Grant, B.(2001) "New Moscow monuments, or, states of innocence," *American Ethnology* 28(2), 332-362
- Shevchenko, O.(2002) "'Between the holes': Emerging identities and hybrid patterns of consumption in post-socialist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 54, No. 6, 841-866.
- Sidorov, D.(2000) "National monument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The resurrections of the cathedral of Christ the Savior in Moscow,"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0(2), 548-572.

Резюме

Постсоветская культур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 рождение нов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Москве

Ли, Чжи-Ен

Данная статья начинается с рассмотрения дуальных моделей 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о которых многие историки культуры (Ю. Лотман, Б. Успенский, В. Паперный и т.д.) уже обсуждали.

И на фоне этих дуальных моделей объяснить процесс становления 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пост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который начался вместе с разрушением и негацией советских монументов, — также и является целью нашей работы. Автор статьи исследует такой процесс через события вокруг московских монументов, которые или испытали переосмысления, или заново сконструированы. В частности анализируется отражавшаяся в архитектурном проекте мэра Москвы Ю. Лужкова и его друга архитектора Зураба Церетели гетерогенность и даже хаотичность 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И дальш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в режиме Путина переделывается дуальная культурная модель периода Перестройки, абсорбируя и реинтерпретируя "советское", и через это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настоящее лицо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논문 심사 일정

논문 투고일:	2009. 03. 10
논문 심사일:	2009. 03. 16 ~ 2009. 03. 27
심사 완료일:	2009. 04. 02